

[보도자료] 쿠팡, 중소 패션 업체에 역대급 지원

2020. 6. 4.



쿠팡은 소비 위축으로 판로를 잃은 영세 소상공인, 중소 납품업체를 돕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유통, 납품기업들과 함께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사진 왼쪽 두번째) 및 관계자들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4일 공정위-유통업계-중소납품업체와 상생협약 체결
- 어려움 겪는 영세, 중소 패션 업체를 위해 최대 100일간 ‘대한민국 동행세일’ 프로모션 진행
- 50억 원 규모의 판매수수료 인하, 750억 원 규모의 판매대금 조기지급, 4억 원 규모의 광고/마케팅 지원

2020. 6. 4. 서울 — 쿠팡이 소비 위축으로 판로를 잃은 영세 소상공인, 중소 납품업체를 돕기 위해 나섰다. 쿠팡은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계, 중소 납품업체와 함께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작은기업들이 쿠팡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804억 원 규모에 달하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한준석 한국패션산업협회장,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 등 22개 패션업계, 유통기업, 납품기업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소 납품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100일간 ‘대한민국 동행세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작은기업들이 쿠팡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먼저 쿠팡 마켓플레이스 패션카테고리 부문에 신규 입점하는 셀러들이 판매수수료를 최대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50억 원이 지원된다. 늘어난 고객 주문에 상품 재고를 급히 준비해야 하는 판매자,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여유자금이 절실한 판매자 등 중소기업체의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들에게는 750억 원 수준의 판매대금 지급을 앞당길 예정이다. 상품이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노출되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쿠팡 사이트 내 광고를 비롯한 4억 원의 마케팅 활동도 이번 프로모션에 포함된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쿠팡을 통해 전국의 영세, 중소 판매자들이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쿠팡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농가 및 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힘내요 대한민국’ 프로모션을 4월 한 달간 진행한

바 있다. 지역 업체의 매출 상승을 이끈 성과에 힘입어 이달부터 전국 7개 지역이 참여하는 2차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